07년 상반기 타이어 안전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에서는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업계와 합동으로 타이어 안전검사 및 서비스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타이어 사용 · 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타이어 안전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인 공동방안을 모색, 실시하고 있습니다.본고는 우리협회가 운전자들의 타이어 안전사용 · 관리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년 상반기(3~7월)간 실시한 타이어 안전검사와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1. 타이어 안전검사

금년 상반기(3~7월간, 5회) 안전검사에서는 10대중 1.5대 정도가 타이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결과대비 다소 증가한 것이다. 정비불량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압 부족」타이어의 사용차량은 10대중 약 1대 꼴이었으며,『과부족 타이어』사용 차량은 0.5대 정도였다.

1 실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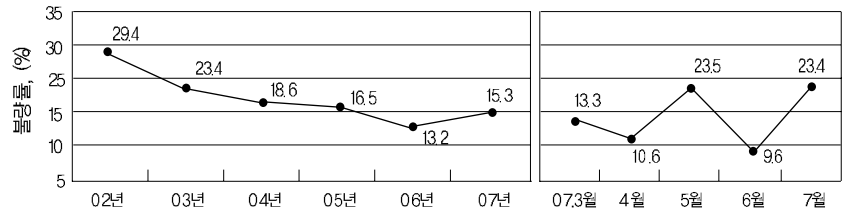
차 수	일 자	장 소	검사대수(대)
1 차	3.16	성산 자동차 검사소 (서울 마포구 소재)	158
2 차	4.27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	302
3 차	5.25	노원 자동차검사소 (노원구 하계동)	204
4 차	6.22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280
5 차	7.20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강릉방향)	205
총 5회, 승용차 1,149대 검사			

2 검사결과 내용

(1) 타이어 정비불량율 (= 총 불량대수 / 총 검사대수× 100)

07년 상반기 안전검사에서는 총 검사대수 1,149대 중 타이어 정비불량 차량은 176대로 정비불량율은 15.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상반기 불량률(13.2%) 대비 2.1%p 상회하는 것이다.

〈정비불량율 추이(연도별 3~7월간 5회 평균 기준 및 07년 당월)〉



☞ 07년 3, 5월 검사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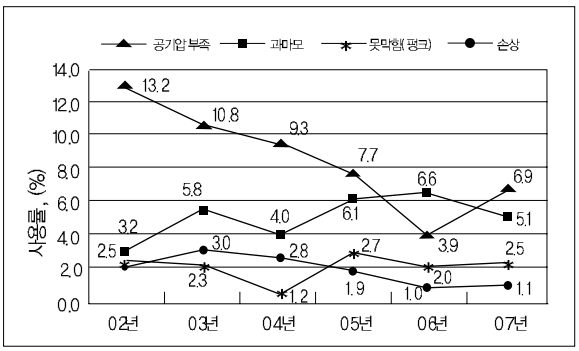
매년 3~7월간 5회 검사의 평균을 기준으로, 02~06년간 타이어 정비불량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05년 불량율을 약간 하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불량율의 변동폭은 10%~24%로 나타났다.

(2) 타이어 정비불량 유형별 사용율 (= 각 불량유형별 대수/ 총 검사대수× 100)

07년 상반기 안전검사에서 정비불량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공기압부족」타이어의 사용율은 전년 상반기 3.9% 대비 3.0%p 증가한 6.9%(총 검사대수 1,149대 중 각각 79대)였으며,「과마모」타이어 사용율은 1.5%p 감소한 5.1%(59대)였다. 한편,「못박힘(펑크)」과「손상」은 다소의 증가를 보이면서 각각 2.5%, 1.1%의 사용율을 나타내었다.

02년부터의 정비불량 유형별 사용율(매년 3~7월간 5회 평균 기준) 추이를 보면, 06년까지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던「공기압부족」타이어의 사용율은 금년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과마모」는 04년을 제외하고 0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금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한편「못박힘(펑크)」과「손상」은 미미한 변동폭을 보이면서 금년 들어 전년대비 모두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비불량 유형별 사용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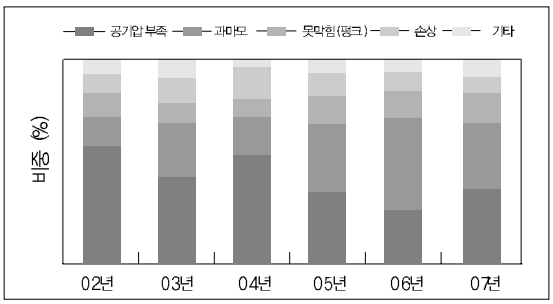
(3) 타이어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 각 불량유형별 건수/ 총 불량건수× 100)

07년 상반기 안전검사에서의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을 보면,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공기압부족」과「과마모」는 전체 71.1%로서 06년 상반기 대비 2.6%p 감소하였으며, 이중「공기압부족」에 비해「과마모」비

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각각 40.7%, 30.4%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02~06년간 정비불량 유형 비중(3~7월간 5회 평균 기준)을 살펴보면, 「공기압부족」과 「과마모」가 지속적으로 70~80%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공기압부족」은 06년을 제외하고 「과마모」비중을 계속 초과하였다.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추이〉



2. 타이어 안전사용 ·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1 실시개요

차 수	일 자	장 소	응답자수(명)
1 차	3.16	성산 자동차 검사소 (서울 마포구 소재)	130
2 차	4.27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	149
3 차	5.25	노원 자동차검사소 (노원구 하계동)	176
총 3회, 승용차(일반승용 76%, 레저용 14%, 승합차 · 짚차 10%) 운전자 456명 설문			

2 설문조사 결과 내용

(1) 타이어 교체에 있어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5년 미만', '6만km 미만' 정도 사용하고 교체

타이어 교체시기는 교체경험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응답하지 않은 24명을 제외하고,「3년 미만」의 기간에 교체하는 응답자는 190명(44.0%),「3년 이상 5년 미만」은 205명(47.4%),「5년 이상」이 37명(8.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전자 (06년 96.8%, 금번 91.4%)가 5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를 교체하기까지의 사용주행거리는 응답하지 않은 116명을 제외한 340명중「3만km이상4만km미만」이 92명(27.1%),「4만km이상6만km미만」은 183명(53.8%),「6만km이상」은 65명(19.1%)으로, 상반기 설문시와 같이 운전자의 약 80% 정도(06년 79.5%, 금번 80.9%)가 6만km 이내 정도 사용하고 교체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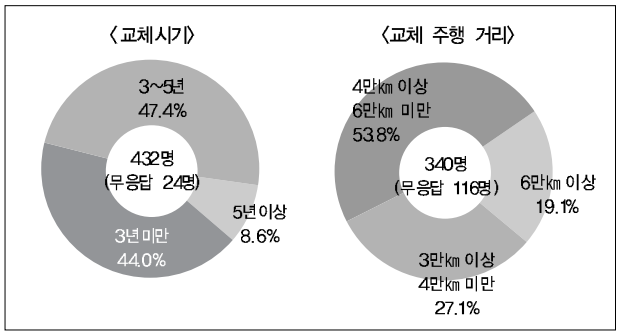
(2) 1/3이상의 운전자가 주행 중 타이어관련 문제를 경험, 문제유형 중 펑크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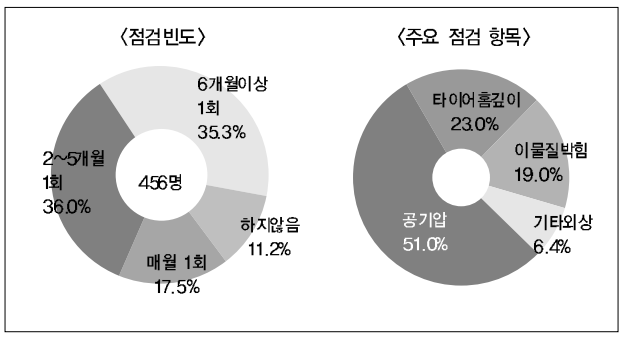
응답을 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하고 타이어가 문제된 경험이 있었다는 운전자는 158명(35.0%)이었는데, 06년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제유형중 「펑크」가 69.6%로 가장 많았고,「파열」17.0%,「접지면 고무분리」7.0%,「기타」6.4%의 순이었다.

(3) 권장 타이어점검 빈도(월 1회)로 점검을 하는 운전자는 5명중 1명 정도였으며, 절반이상이 공기압 위주로 점검

타이어 점검빈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협회 권장 타이어 점검 빈도인「매월 1회」 점검이 80명(17.5%)에 그쳤고,「2~5개월 1회」164명(36.0%),「6개월 이상 1회」 61명(35.3%),「하지 않음」이 51명(11.2%)이었다.「매월 1회」점검을 하는 운전자 비율은 06년 설문(23.8%) 대비 6.3%p 크게 감소한 것이며「5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을 하는 운전자 비율도 53.5%로서 06년 58.1% 대비 4.6%p 감소하였다.

한편,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점검하는 항목은「공기압」점검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타이어홈깊이」가 23.0%,「못 · 이물질박힘」이 19.6%,「기타 외상」6.4% 순으로 응답하여 절반가량이 공기압을 위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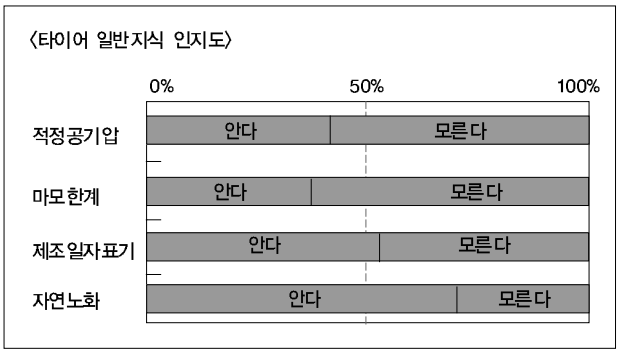




(4) 주요한 타이어안전관리(공기압, 마모상태)와 관련된 적정공기압과 마모한계를 모르는 운전자가 절반 이상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할 항목인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상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적정공기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절반 미만인 199명(43.8%)으로 06년 설문 인지도 47.0% 대비 3.2%p 감소하였고, 타이어 사용한계(남은 홈깊이 1.6mm)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191명(42.7%)으로 06년 인지도 40.4% 대비 2.3%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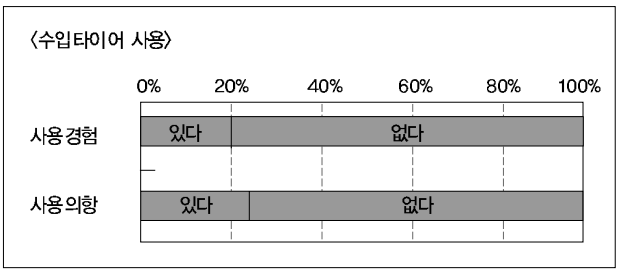
그 외에 제조(생산)일자가 타이어 옆면에 표기된 것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235명(52.6%)으로 06년 54.0대비 1.4%p 하회하였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이어가 자연노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315명(70.2%)으로 06년 65.0% 대비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입 타이어를 사용한 경험이나 의향이 있는 운전자는 5명에 1명 정도, 주된 사용이유는 품질

수입타이어의 사용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는 89명(19.7%)으로 06년 설문(23.6%) 대비 3.9%p 감소하였고, 향후 수입타이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운전자도 106명(23.6%)으로 06년 비율(28.5%)대비 4.9%p 감소하였다.

한편, 사용경험이 있거나 의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국산타이어와 비교한 수입 타이어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서는,06년과 마찬가지로 저소음, 내구성, 승차감 등「품질(66.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가격(27.6%)」,「기타(5.7%)」순이었다.



3. 시사점

금년 상반기 타이어 교체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약 90%가 5년이내, 사용주행거리로는 약 80% 정도가 6만km 이내 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 검사 결과 10대 중 약 2대 정도가 타이어의 정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정비불량율이 곧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율이라고 생각하면 타이어를 사용하는 동안의 적절한 사용·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의식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타이어 점검 빈도를 묻는 설문에서 1/3 이상의 운전자가 주행 중 타이어문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협회가 권장하는 최소한 '한달에한번' 의 공기압 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정공기압' 과 '타이어(마모)사용한계' 는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이상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간에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의 높은 비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타이어에 기인한 교통사고들은 적정공기압과 마모상태 확인 등의 적절한 타이어 안전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어서, 타이어 안전사용 · 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각종 유관 기관 및 매체들에서의 타이어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수동적인 인지 측면이 실제 점검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생활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운전자의 타이어관리에 관한 관심 및 안전의식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저조하여 향후 여성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 홍보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